

‘추락한 FIFA랭킹’ 韓축구, 독일·스페인과 한 조 뉘일수도

월드컵 본선 조 추첨 방식, 10월 FIFA랭킹순으로 변경
한국, 중국(57위)에 뒤진 62위로 추락...4번 포트 확정
스페인·잉글랜드, 2번 포트...두 팀과 한 조 편성될수도

한국이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62위로 추락했다. 처음으로 중국(57위)에 추월당하며 2018 러시아월드컵 본선에서 '죽음의 조'에 편성될 위험이 높아졌다.

한국은 16일(한국시간) 발표된 FIFA 랭킹에서 62위로 떨어져 1998년 랭킹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중국보다 아래에 머물렀다. 무려 11계단이나 하락했다.

자존심을 구긴 것은 물론이고 순위 하락으로 인해 내년 러시아월드컵에서 데미지를 입게 됐다. 본선 조 추첨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월드컵 본선 조 추첨은 대륙별 포트(그룹)를 배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이제 FIFA 랭킹 순으로 그룹을 묶는다. 10월 FIFA 랭킹이 절대적인 존재감을 띠게 된 셈이다.

FIFA는 이달 랭킹을 통해 32개

참가국을 순서대로 1번 포트부터 4번 포트까지 나눈다. 한 포트는 8개국으로 1번 포트가 톱시드다. 포트별로 한 국가씩 모여 4개국이 한 조를 이룬다. 총 8개 조다. 유럽을 제외하고 같은 대륙의 나라가 한 조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은 유지된다.

아직 본선 진출 32개국이 다 정해지지 않았지만 1번 포트는 정해졌다.

개최국 러시아를 포함해 FIFA 랭킹 1~7위가 톱시드다. 독일(1위), 브라질(2위), 포르투갈(3위), 아르헨티나(4위), 벨기에(5위), 폴란드(6위), 프랑스(7위)다. 경쟁한 강호들이다.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된 23개국 중 랭킹이 한국보다 아래인 곳은 사우디아라비아(63위), 러시아(65위)밖에 없다.

본선 진출 가능성이 남아있는 국

가 중 한국보다 순위가 낮은 곳이 있지만 4번 포트에서 탈출할 수 없다. 3번 포트에 들어갔다면 4번 포트를 통해 '1승 제물'이라도 기대했겠지만 한국이 타 팀들의 유력한 '1승 제물'이다.

유럽의 전통적인 강호 두 팀과 한 조에 속할 위험이 크다. 무적함대 스페인과 축구종가 잉글랜드가 각각 8위, 12위로 2번 포트에 자리했기 때문이다. 아직 본선행을 확정하지 못했지만 이탈리아(15위)도 2번 포트 대상이다.

사실상 톱시드나 다음없는 전력을 자랑하는 스페인 잉글랜드와 한 조에 속한다면 16강 진출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진다.

'독일·스페인', '브라질·잉글랜드', '아르헨티나·스페인', '포르투갈·잉글랜드' 등 상상만 해도 끔찍한 조합들이다.

이처럼 최악의 시나리오가 쓰일



가능성이 커진 건 한국 축구가 자초한 일이다. 아시아 최종예선을 4승3무3패라는 저조한 성적으로 어렵게 통과했다. 최근 유럽 원정에서 2연패를 당하며 랭킹 점수를 많이 까먹었다.

60위대로 떨어지면서 본선을 앞

두고 제대로 된 상대와 평가전을 잡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소중한 평가전 기회를 약한 팀과 하려는 것은 별로 없다.

최근 대한축구협회의 내부 비리와 행정력 부재, 대표팀의 부진한 경기력 등으로 내우외환(內憂外患)

을 겪고 있는 한국 축구에 또 하나의 비판적 소식이다.

러시아월드컵 본선 조 추첨은 오는 12월1일 러시아 모스크바의 크렘린 궁에서 진행된다.

뉴스스



우측부터 공계진 선수, 한귀순 선수, 김석봉(보성군협회 회장) 김종필(광양시협회 회장) 천세영 선수, 강성미 선수, 박삼순 선수, 박상을 선수가 시상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양시 후보 팀 동부 게이트볼대회 '우승'

전남 동부 7개 시·군서 30개 팀 열전 2연승

제174회 전남동부 동부 7개 시·군 게이트볼대회가 지난 16일 보성 종합체육관에서 시군 대표 30개 팀이 출전. 선수 인원 300여 명이 열띤 경기를 벌였다.

전라남도 동부 7개 시·군 순번대로 개최하고 있는 이번 대회는 보성군 게이트볼협회(회장 김석봉)에서 주최했다.

특히 이번 보성에서 열린 대회

는 개최식 행사를 생략하고 경기를 개시해 선수들의 편익과 여유 있는 경기 진행을 했다.

이에 광양시 후보 팀이 제173회에 이어 제174회 대회에서까지 우승을 차지 2연승을 거두어 우승기를 거머쥐는 영광을 안았다.

우승에 기여한 출전선수는 천세영(주장)선수, 강성미 선수, 공계진 선수, 박삼순 선수, 박상을

선수, 한귀순 선수가 이끈 실력을 발휘해 광양시는 물론 팀의 명예에 큰 공을 세웠다.

우보 팀은 광양시 게이트볼협회 사무국장이기도 한 천세영 씨가 이끄는 팀으로 전국에서도 실력을 과시하고 있고 광양시 게이트볼선수 양성에도 각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한편 이 대회 준우승은 여수시 전 팀이 차지했다.

광양=김종권 기자

길어지는 침묵...FC서울 데얀 무득점 원인은 무엇인가

오는 21일 수원 삼성과 올시즌 마지막 슈퍼매치

데얀(36)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 데얀의 침묵이 길어지는 만큼 FC서울도 순위를 끌어올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데얀이 벌써 9경기 째 무득점을 이어가고 있다. 데얀의 마지막 득점은 지난 8월 5일 대구FC전 1골이다. 2개월 넘게 데얀이 골맛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데얀은 기록 없이 꾸준한 골을 터뜨리는 선수이기 에 긴 침묵은 데얀이나 서울 모두 당혹스럽다. 데얀의 골이 터지지 않는 만큼 서울도 승리를 얻지 못하고 있다.

데얀은 올 시즌 K리그 클래식에서 16골을 기록하고 있다. 서울은 데

얀이 골을 넣지 못하면 공격의 약화는 피할 수 없다. 갈 길 바쁜 서울로서는 데얀의 침묵에 속이 달 않는다.

그렇다고 데얀의 부진은 아니다. 황선홍 감독이 보는 데얀의 침묵 원인은 '과부화'였다. 너무 데얀에게 쫓리다 보니 상대 수비에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황선홍 감독은 "최우에서 흔들면서 시신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미드필드가 안정되지 못하면서 데얀에게 부하가 걸렸다. 골은 혼자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즉 여름에 데얀의 골을 도우며 좋은 컨디션을 보였던 윤일록이 주춤하고, 여름 이적시장 때 영입한 코



바가 부상으로 전력에서 빠진 것이 데얀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원인을 알면 해결책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마땅히 해결할 방법이 없다. 윤일록의 컨디션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코바에 이상호까지 부상자여서 공격의 지원은 더욱 약해졌다.

당장 오는 21일에 열릴 수원 삼성과의 올 시즌 마지막 슈퍼매치 결과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세계랭킹 1위 양보 못해” 유소연-박성현, 대만서 재대결

오로지 한 명에게만 허락된 골프 여제의 자리를 두고 자기려는 자와 빼앗으려는 자의 다툼이 어느 때보다 치열하다.

여자골프 세계랭킹 1위 유소연(27·메디힐)과 2위 박성현(24·KEB하나은행)이 골프여제의 자리를 두고 또 한 번 격돌한다.

'아시아인 스윙' 두 번째 대회인 '스윙잉 스커츠 LPGA 타이완 챔피언십'이 19일부터 나흘 동안 타이완 미러미CC(파72)에서 펼쳐진다.

이번 대회에서는 17주 연속 세계랭킹 1위를 지키고 있는 유소연과 지난해 한국에서 열린 KEB하나은행 챔피언십에서 어렵게 우승을 차지하며 1위 등극의 기회를 다음으로 미룬 박성현이 재대결을 펼친다.

유소연은 KEB하나은행 챔피언십에서 공동 8위를 했지만 박성현이 준우승에 머물며 가까스로 1위 자리를 지켰다.

하지만 둘의 격차는 지난해 0.78 포인트에서 0.25포인트로 좁혀졌다. 추격하는 박성현으로서는 반드시 우승이 필요했던 지난해와 달리 이번에는 경우의 수가 훨씬 많아졌다.

반면 지키는 임자인 유소연은 경쟁자인 박성현이 상위권에 들고 자신은 좋지 않은 성적을 받아들여 경우 1위 자리를 양보할 수 있다. 세계 1위 지리가 18주 만에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다.

올 시즌 LPGA 투어는 이번 대회를 포함해 5개 대회만을 남겨 놓고 있다. 시즌이 막바지로 향하면서 각종 타이틀을 손에 넣기 위해 경쟁도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그 중심에도 유소연과 박성현이 있다. 3패전의 한 축인 렉시 톰슨(미국)은 이번 대회 불참한다.

유소연은 올해의 선수 부문에서 153포인트로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이 역시도 박성현(142포인트)에게 11점 차로 쫓기고 있다.

반면 상급랭킹에서는 박성현이

내일 개막 '스윙잉 스커츠 LPGA 타이완 챔피언십' 경쟁
렉시 톰슨 불참...주요 타이틀 경쟁 앞설 수 있는 기회



여자골프 세계랭킹 1위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유소연(왼쪽)과 박성현.

2016년 23달러로 1위에 올라 있다. 2위 유소연(182만 696달러)은 격차가 벌어지지 않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박성현은 올해 신인들 가운데 압도적인 성적을 거두며 일찌감치 신인왕 등극을 기정사실화했다.

상급랭킹은 물론 평균타수 부문에서도 선두였던 톰슨을 2위로 밀어내고 1위에 올라 있다. 올해의 선수 부문도 1위 탈환을 가시권에 두고 있다.

만약 박성현이 4개 부문을 석권한다면 1978년 낸시 로페즈(미국) 이후 무려 39년 만에 대업을 이룩하게 된다. '슈퍼투키'에서 세계 여자골프 '대세'가 된다.

박성현으로서는 앞으로 남은 매 대회가 역사적인 시즌을 위한 분수

령이고 승부처인 셈이다.

유소연과 박성현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지만 경쟁자들의 추격도 만만치 않다.

올 시즌 준우승 5회와 3위 2회로 번번이 우승 문턱을 넘지 못한 전인지(23)는 미수결이 우승을 버리고 있다.

최근 부진이 길어지고 있지만 지난 시즌 투어를 양분하다시피 한 에리아 쭈타누간(태국)과 리디아 고(뉴질랜드)도 명예회복을 노린다.

아시아 무대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준 양희영(28·PNS)과 김효주(22·롯데)도 아시아스윙에서 우승에 도전한다.

국내 복귀 후 아직 우승이 없는 디펜딩 챔피언 장하나(26·BC카드)는 타이틀 방어를 나선다.

UFC 전 헤비급 챔피언 케인 벨라스케즈, 내일 방한

전 UFC 헤비급 챔피언 케인 벨라스케즈(35·미국)가 오는 19일 한국을 찾는다.

현재 UFC 헤비급 3위에 올라있는 케인 벨라스케즈는 안토니오 호드리고 노게이라, 브록 레스너와 주니어 도스 산토스 등 여러 강자들을 격파하며 UFC 헤비급

15대와 17대 챔피언으로 활약한 세계 정상급 파이터다.

2박 3일간의 짧은 일정으로 방한하는 벨라스케즈는 내한 기간 중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관을 방문한다. 또 한국인 페더급 파이터 정찬성과 함께 공동훈련도 예정돼 있다.

한편 벨라스케즈는 국내서 UFC 홍보 등 다양한 일정을 소화한 후 21일 중국 상하이로 떠난다.

뉴스스